

제 29 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2023 년 11 월 9 일 오전 11:25 시 / 장소: The Orleans Hotel, Las Vegas, NV

의장: 제 29 대 공동총회장/ 사회: 박경덕 사무총장

참석인원: 129 명 정회원 참석과 일반 회원과 귀빈 포함하여 200 명 참석

1. **개회기도** : 이민기 회장 (Rev. James Lee)

시간 11:25 AM 시작

2. **개회 선언**: 국승구 대내 공동회장

3. **국민의례**: 이영희 회장 성조가, 애국가

4. **성원보고** : 박경덕사무총장(제 29 대 정회원 129 명 정족수 만족)

5. **개회사**: 국승구 대내 공동 총회장

6. **환영사**: 김병직 대외공동 총회장

7. **안건상정 및 의결**:

a. 감사보고: 안상준 감사

내부 감사 : 안상준, 김유진, 외부감사: 이경순 CPA

김유진 감사 29 대 정기 총회 참석 못한 여부 밝힘

이유: 현재 일본 출장중, 11 월 10 일 이 총회날짜로 알고 있었다. 총회 날짜 변동에 의해 혼동.

b. 재무보고: 조승주 재무국장

시간: 11:52 AM

29 대는 회원관리와 철저한 재무보고에 많은 노력을 했다. 디테일한 보고와 자료는 웹사이트 올려있으니 회원들의 참고를 부탁한다.

2021 년 7 월 – 2023 년 6 월까지의 재정의 세금보고를 마친상태.

총수입: \$ 294,137 (회비, 후원금, 후원광고 등)

총지출: \$264,618

잔액: \$29,682 (6 월말 세금 보고서 총 잔액금)

2023 년 6 월 -2023 년 10 월까지

수입: \$27,680 10 월 지출: \$30,215.83 잔액: \$27,147.17

Clear 되지 않은 지출 처리후 11 월 잔액: \$22,474

2nd 계좌 오픈: \$500 입금, 2nd 계좌는 30 대에 인수인계

재정보고 대한 질문 없음

재무보고 현왕 승인 만장 일치

이의: 이정규- 재정보고 영수증에 대한 의문점, 재정이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다.

- 의장 국승구 총회장 : 미한협 계좌 마감했음, 세금 보고도 마침, 와싱턴 행사 모든 서류 받았고, 어떤 절차의 문제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재정으로 아무 하자 없다.

- 라스베가스, 와싱턴 DC 행사 총괄 담당자 김만중 회장: 수입, 지출 완벽히 보고하고 총회장과 집행부에서 아무 하자 없이 보고를 받아드렸다.

- 21 년 부터 23 년 6 월까지의 29 대 세금보고는 완료했다.

- 세금보고문제: 3 년 세금보고 하려했으나 책임사의가 있어 IRS 한테 양해를 구해 나중에 처리하는걸로 하겠다.

29 대 재정보고 승인: 동의- 김일진, 재청- 김할란

의장 국승구총회장 의 재정보고 통과 선포

8.사업보고: 박경덕 사무총장

2020 년도서 부터

7 월 30 일 : 덴버 상임 이사회

12 월 : 달라스 임원회의 - 2023 년 10 월에 있을 세계 한인회장대회의 공동의장이 됨을 발표

2023 년 1 월 :버지니아에서 신년하례식

2023 년 8 월 17 일: 시카고에서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30 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

2023 년 8 월: 재정 감사

2023 년 10 월 : 세계 한인회장대회에 참석, 공동 의장에 책임을 잘 담당하고 고국지방단체와도 좋은 관계를 맺는 역할을 담당했다.

29 대에의 가장 큰 업적은 3 분국승구, 김병직, 서정일 총회장의 통합으로 분류 해제가 되고 하나된 미주 총연합회가 됐다는 것이다.

29 대는 29 대의 계좌, 홈페이지, 카카오톡 방 모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다.

사무보고 승인

동의: 김일진, 재청: 김소희

의장 국승구 총회장 사무보고 통과 선포

시간: 12:21 PM

9.법정소송 현황: 변호사 찹 피터슨 (Attorney Chap Petersen) 김풍진 회장 통역

정명훈회장의 정통 총회의 총회장임을 주장에 대해 통합 미주 총연합회에서 2023 년 3 월에 정명훈에게 걸은 소송과 법정 결과를 무시하는 정명훈 회장에 대한 보고.

미주 총연합회의 로고와 총회장 노릇하는것에 대한 금지명령을 Fairfax County 법정에 요구했고 2023 년 4 월 18 일 에 판사로 부터 정명훈 회장한테 금지명령를 내렸다. 그러나 정명훈 회장은 판사에 명령을 무시하고 아직도 미주 총회장을 가장하고 활동하고 로고도 사용하고있다.

정명훈 회장한테 내린진 금지명령후, 총회를 통해 30 대 새로운 미주 총회장이 인준 받은후 법원에 정명훈 회장이 판사의 판정을 준수하고 시행할것을 요구할것이다. 재판이 필수면 재판을 시작할것이고 정회원 서명자료, 결의안, 사진, 비디오 등의 증거자료를 받아 재출하여 진실한 미주 총연합회의 지도자의 모습이 이자리에 있음을 발표할것이다.

이 소송의 두가지 목표는:

- 1) 미주 총연합회의 통합을 확인
- 2) 통합 확인후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관계를 회복, 합당한 재정 지원금을 받는 그런 관계도 100 % 회복되는것이다.

*긴급안건상정: 회원 재명 복권건 : 의장 국승구 공동 총회장

7 월 20 일 2022 년 제 1 차 덴버 상인이사회의에서 가결 내용-

지금까지 미주 총연합회에 있었던 모든 회원 증계는 전체 다 복권이 되는것으로 그때 가결이되었다.

이차로 11 월 10 일 2022 년 에 달라스에서 있었던 임원,이사 합동회의(위원도 포함) 에서도 다시 한번 상정을 받고 완전 회원 재명 복권이 가결 되었다.

이 자리 29 대 총회에서 그동안 미주 총연합회 회원으로 재명을 당한 회원들을 복권 하는 안건에 다시 한번 의결를 제안했고 회원 만장 일치로 미주 총연합회에서 재명된 회원이 다 회원으로 복권되었음을 선포함으로 안건이 통과 됐다.

(만장 일치지만 기록이 필요할시 동의: 김일진, 재청: 오니콜, 이의: 없음)

10.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폴송 선관위원

석균세 선거관리 위원장 수술로 참석 못하여 폴 송 선거관리위원이 보고

선거관리위원참석자: 폴송, 최광희, 조규자, 김진희, 장익군

이상우 재무 한국에 있으므로 참석 못함

- a. 선거결과 보고- 2023 년 8 월 18 일 시카고 상임이사 회의에서 선관위원들 인증 받고 당일 선거 공고를 했다. 등록 마감일은 2023 년 9 월 18 일 동부시간 오후 5 시까지로 정했다. 서정일 이사장, 전 시카고 한인회장께서 단독 후보자로 등록, 후보자 서류 검토후 이상여부가 없음으로 회장 등록필증을 발부했다. 서정일 후보자가 24, 25, 26,27,28,29 대 정회원임을 사무처에서 확인, 60 명 추천서확인(서정일 후보자는 총합 221 명의 추천서를 받아 접수), 후보등록금 5 만불 확인하고 수령, 2023 년 9 월 23 일 당선공고.

미주 총연 회칙 4 장 23 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회칙 6 조 9 하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당선 인준.

- b. 선거관리위원회 재정보고: 최광희

등록금: \$50,000

지출금: \$6,500 – 공고, 광고비

*Zoom meeting 으로 재정 절약

서정일 후보자 당선 절차는 마주 총연합회 회칙 제 4 장 23 조 에 따라 100 명의 정회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9 대 총회 정회원 참석 129 명 으로 정족수에 만족이 되었으므로 서정일 후보자 30 대 미주 총연합회 총회장으로 당선됨을 만장일치의 동의, 재청을 받고 이의 없음으로 인준됨. (동의: 이동섭, 재청: 김동수)

c. 당선증 증거

11. 결의문 채택: 변호사 챗 피터슨 (Resolution : Attorney Chap Petersen)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반영 결의안

제 30 대 미주 총연합회 총회장 선거의 모든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등록서류와 조건을 공표한 반면, 2023 년 9 월 18 일 서정일과 변재성 두 사람이 등록자료를 제출했다. 2023 년 9 월 23 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정일을 모든 요건을 갖춘 유효한 후보자로 등록한 반면, 변재성 후보자는 등록 조건에 정해진 공증된 서명 추천서를 60 개를 제출하지 않은것으로 선거위원회에 통보되었다. 그 결함을 치유하지 못했고, 결과로 변재성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재가 적절한 등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결정한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년 9 월 23 일 서정일을 제 30 대 미주 총연합회장 선거의 단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1) 서정일 후보자는 총연합회의 회장후보로서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변재성 회장후보자는 후보자 자격 박탈로 결정한 바,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정일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수용하기로 결정한다. 서일은 제 30 대 미주 총연합회장 선거의 단독후보로 이를 확인하고, 서정일 후보자를 2024 년 1 월 1 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 30 대 미주 총연합회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한다.

12. 폐회선언: 김병직 공동 총회장

미주 총연합회의 모든 일은 역사에 남는다. 역사의식으로 미주 총연합회를 잘 이끌어 갑시다.

미주 총연합회 29 대 총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All in favor: All said aye.

동의: 이동섭 재청: 김동수 이의 없음

시간: 1:00 PM

이상